

## 정부, 농어민 부채 경감 대책 발표

### 1백만원까지 연리 8% 신용대출

정부는 지난 3월 16일 농어민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사채를 농·수·축협이 공급용으로 대환해 주고, 각종 농수산물 관련 정책금융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83~84년도에 대출된 소 입식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액 탕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민부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천5백억원 규모의 한국은행 특융을 실시하고 정부 재정에서 1천억원을 특별 배정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농어가 부채 대책에 따르면, ▷ 농지규모가 1ha 미만의 영세농가, 어선이 없거나 무동력선을 보유한 어가의 경우 가구당 1백만원 한도내에서 사채를 연리 8%에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의 농·수협 자금으로 바뀌고 ▷ 이들 영세농가의 사채중 1백만원을 넘는 부분과 1ha 이상 농가의 사채에 대해서는 총 5천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14.5%의 농·수협 상호금융으로 바뀌우기로 했다.

정부는 사채를 공급용으로 바뀌줄 경우 영세

농가가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 정부가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5백억원을 출연, 이를 근거로 담보없이 전액 신용대출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물 관련 중장기 자금의 금리를 현행 연 10~11%에서 일률적으로 8%로 인하 3월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미 금리가 인화된 영농·영어 자금을 포함해 모든 농수산물 관련 정책자금 금리가 연 8% 이내로 떨어졌다.

특히 0.5ha 이하의 영세농가가 15일 이전에 대출받은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 날자로 금리를 현행 5~11%에서 일률적으로 연 3%로 대폭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모두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이밖에 농어촌 자금의 연체금리도 연 17~20%로 되어 있는 것을 각각 2% 포인트씩 낮춰 연 15~18%로 인하 조정됐다.

정부는 또 소값 하락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83~84년도에 빌어간 소 입식자금(2천5백2억원)에 대해서는 9백3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한푼도 받지 않고 원금만 받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10월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에 따라 풀려 나갈 농지구입 자금(농지금융) 규모는 2천억원으로 설정, 대출조건은 2년거치 18년 상환에 연리 5%로 확정했다. 농지구입 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가부채를 늘리는 주요인인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1년까지 대학 기숙사 시설을 대폭 확충, 기숙사 수용율을 현재 13%에서 40%로 높이고 농어민 자녀에게 우선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부채는 '86년말 현재 4조1천3백억원(가구당 2백19만4천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번 부채경감조치로 오는 8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7천5백61억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농어촌 부채대책 주요내용

구분	대상	조치내용
사채대체 자금공급	1ha미만농가와 무동력선 보유 또는 이선없는 농가의 사채	5천억원을 2년거치 3년상환, 연8% 자금으로 대환
상호금융 자금공급	1ha이상 농가와 종류이상 어민의 사채	상호금융(연 14.5%짜리) 자금을 5천억원공급, 사채를 대체
중장기자금 금리인하	모든 중장기 정책자금	16일부터 이자율을 연10~8%로 인하
영세농어가에대한 특별금융혜택	0.5ha미만 영세농어가가3월15일 이전에 갖다쓴 중장기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3년동안 유예한뒤 7년분할 상환. 금리는 연5~11%에서 3%로 인하
소입식 자금금리인하	83, 84년에 대출해간 소입식자금(2,502억원 대상)	금리 연8%에서 무이자로 탕감
농지구입 자금	추후결정예정	2천억원 공급예정. 2년거치 18년상환, 이자율 연5%
연체금리이자	모든 농어민관련 연체대출	연 17~20%에서 연15~18%로 2%포인트씩 인하

## 정부, 전국에 돼지 콜레라 발생주의보 발령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19일 전국에 돼지 콜레라 발생 주의보를 발령했다.

농진청은 최근 강원·경기·충남·전북 일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돈농가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진청은 돼지 콜레라 예방조치로 돈사와 그 주변을 가성소다 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양돈장내 출입을 제한하는 한편, 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치 말고 믿을 수 있는 농장에서 구입해 2~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 주도록 양돈농가에 당부했다.

## 폐기물 관리법 당초안보다 크게 완화

돈사 200㎡에서 500㎡로 상향 조정될 듯 연초부터 양돈업계를 초비상 상태도 몰아넣었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안)이 본회가 건의한 (안)을 대폭 반영한 가운데 경제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확정되었다.

환경청에 따르면,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을 돈사의 경우 당초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고 우사는 600㎡ 이상에서 700㎡ 이상으로, 마사는 6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가금사는 5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시설 규모를 늘려 축산농가의 규제대상을 최소화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는 0.4%(전체 두수의 36%) 정도가 이 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청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범위도 크게 완화해 가축 분뇨의 퇴비화, 저장, 액비화

등 초지환원을 위한 자원으로 분뇨를 이용할 경우에도 정화시설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와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안)이 크게 완화된 것은 본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부 등에서 건의서·의견서 등을 통해 양축가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건의를 강력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은 곧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다.

## 돼지 성장호르몬 Somatotropin, 사료효율증대와 살코기 증산에 기여

돼지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인 Somatotropin을 육성돈에게 매일 주입시키면 성장이 빨라질 뿐만 아니라 살코기를 효율적으로 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코넬 대학교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동 대학의 R. Dean Boyd박사는, 이와같은 시험결과는 양돈농가의 사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방이 적은 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여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Boyd박사는 체중 45kg의 육성돈에게 Somatotropin을 매일 주입하여 성장, 사료효율, 지육 구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시험에서 시험구는 대조구보다 출하체중(100~110kg) 도달일수가 7~10일 단축되고 두당 약 45kg의 사료를 절약했음을 발견했다.

이는 사료효율이 30% 증대됐음을 의미하며 시험구 사료의 단백질 함량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사료비를 24% 절감한 것이다.

또한, 지육의 질도 높아져 지방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살코기가 두당 15~18% 증산되었다.

이와같은 돼지 성장호르몬 Somatotropin의 실용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주요 과제를 보면 최대효과를 얻기 위한 적절한 주입량, 유전공학 기법으로 생산한 Somatotropin의 사용으로 경제성 증대, 주입횟수의 단축 등이 있다.

## 1 월중 돼지고기 97톤 수출

올 1월중 우리나라는 일본에 9만 7천15kg(일화 8만 1천 9백12엔)의 돼지고기를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일본이 각 국별로 수입한 돼지고기의 양은 다음과 같다(단위:톤).

지육: 자유중국(115), 호주(11), 덴마크(7)

부분육: 자유중국(5, 774), 덴마크(5, 678),

미국(1, 687), 캐나다(1, 194), 아일

랜드(186), 스웨덴(175), 필란드

(108), 한국(97), 영국(36), 노르웨이

(36), 호주(11)

## 대만, 돼지 사육두수 사상 최대

대만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해 11월 말 현재 대만의 돼지 사육두수는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한 7백 6만두로서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대만의 돼지 사육두수는 지난 85년까지 6백 70만두로 계속 증가되다 지난 해 3월말 6백47만두로 감소된 이후, 육돈가격이 강세로 반전됨에 따라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한편, 대만 정부는 두수증가에 의한 과잉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양돈장의 국내시장 출하를 억제하여 수출을 유도해 왔으며, 지난 85년에 7만 2천 6백79톤의 돈육을 일본·홍콩 등으로 수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록적인 사육두수로 보아 금

년에도 돈육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돼지 연령별 두수 분포와 전년 동기대비 증감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만의 돼지사육두수

(단위: 두, %)

구 분	1985. 11	1986. 11	증감율
사육농가수(호)	83,709	72,451	△13.4
돼지사육두수	6,701,211	7,056,918	5.3
종모돈	35,301	35,362	0.2
경산돈	661,269	683,810	3.4
미경산돈	70,805	60,850	△14.1
자돈	943,740	992,726	5.2
이유돈	1,722,236	1,877,892	9.0
육성돈	1,653,087	1,736,636	5.1
비육돈	1,614,773	1,669,642	3.4

## 농지상담실(農地相談室) 운영키로

— 농림수산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

농림수산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새 농지제도에 관한 농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농지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나 「영농건의 엽서」로 하면 되는데, 문의처는 다음과 같다.

### ● 농림수산부 농지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 503-7262, 500-2661

### ● 농촌경제연구원 토지경제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 962-7312~5

## 양돈업 허가업체 보유모돈의 12.3% 감축

본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5개 양돈업

허가업체에서는 86년 11월 25일 현재의 보유모돈수 2만9천7백9두의 12.3%에 달하는 3천6백45두의 모돈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모돈의 10%인 2천9백70두보다 23% 많은 것으로 각 업체의 자율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다.

## 대구·경북양돈조합 포장육 가공공장 준공

대구·경북양돈조합(조합장: 김창좌)은 지난 3월 18일 대구시 서구 이곡동 1000-30에서 포장육 가공공장 준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준공한 대구·경북양돈조합 포장육 가공공장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것으로 건평 1백80평에 하루 돼지 50두와 소 20두를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시설이다.

## 가축위생연구소, 돼지 가성광견병 혈청검사 2천4백두 실시키로

돼지 가성광견병의 국내 감염여부를 진단키 위한 혈청검사(역학조사)가 금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가축위생연구소는 금년도에 총 2천4백여두의 돼지에 대한 가성광견병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수입종돈과 국내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할 방침이다.

가축위생연구소가 이와같이 돼지 가성광견병 역학조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감염여부를 사전에 조사·분석해 적절한 방역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양돈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축위생연구소는 '85년도에 10개 시·도를 대상으로 1만3백45두의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86년에는 1천2백23두를 검사한 바 있다.



## 쇠고기 수입억제 촉구 등 건의

'87축협중앙회 정기총회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3월 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과 전국 154개 축협조합장 및 중앙회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7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축협조합장들은 ▷ 소값 안정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쇠고기 수입억제 ▷ 부업 양축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 등 6개항의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축협중앙회는 또 '86년도 새 양축가상으로선 발된 6쌍의 부부와 '86년도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28개 조합 및 도지부와 직원 41명에 대해 각각 표창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축협조합장들은 공식 기강쇄신촉진 결의대회를 갖고 조합원의 소득증대와 축협발전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를 견지할 것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식개혁을 통한 최대봉사의 구현을 다짐했다.

## 영농기술교육 양돈과정 개강 예정

— 농협대학에서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농업협동조합전문대학(학장: 박진환) 부설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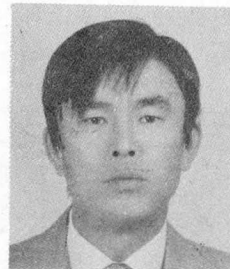
농민기술대학에서는 농업생산력 증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기술교육(양돈과정)을 오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 동대학(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소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국내 양돈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에 의해 돼지의 사양관리, 질병, 경영 등 양돈분야 전반에 관해 이론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동 교육에 참석하고자 희망하는 양축농가는 4월 4일까지 각 단위조합 지도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대상은 양돈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조합원 및 그 가족으로 교육 인원은 100명이다.

## 양돈연구회 신임 회장에 우영제씨



우영제 회장

한국양돈연구회는 지난 3월 14일 반도유스 호스텔에서 '8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우영제(마니육종 SPF 사업본부장)씨를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개편하고 '8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개편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우영제(마니육종 SPF사업본부장)

△ 부 회 장 : 황금영(순천중돈장 대표)

△ 이 사 : 이성균(함박산농장 대표)

김태현(정원중돈장 대표)

김중구(동도축산 대표)

오세진(세진농산 대표)  
 △ 감 사 : 김태웅(영육농산 대표)  
 △ 총 무 : 추태호(한국축산서비스 대표)

동물약품, 종자 및 종축, 농약, 비료, 식품가공품, 농기계, 기구, 축산기자재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 제3회 한국 농수축산 전시회 개최

— 농수축산신보 주최,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실에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농수축산신보(발행인:엄익채)는 오는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여의도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제3회 한국 농수축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농수축산신보가 농업 경영의 과학화와 축산 및 수산물의 식량화로 풍요로운 새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축산부문과 수산 부문 등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동 전시회에는 여러 나라의 농수축산 관련단체와 수출입업체로부터 유가공, 육가공, 사료,

### 연암돈우회, 창립총회 및 세미나 개최 예정

연암축산원예전문대 출신으로 양돈업계에 종사하는 동문 모임인 「연암돈우회」가 오는 4월22일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갖는다.

한편 연암돈우회는 3월초 발기인대회를 열고 회장에 김의겸씨, 부회장에 이상형씨, 총무에 김진목씨, 운영위원에 황성환·박용덕·김형철·박호근·김종필·이종명씨, 감사에 김기재씨를 내정한 바 있다.

#### ● 창립총회 및 세미나 일정

일시: 4월 22일, 오전 11시~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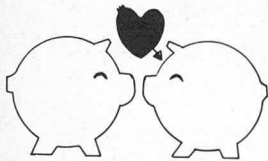
장소: 연암축산원예전문대학 시청각 교육실

# 돼지를 화목하게

돼지용 진정제

## 스트레스닐 주

- 스트레스닐은
1. 합사시의 싸움을 방지합니다.
  2. 수송시의 스트레스를 방지합니다.
  3. 암돼지의 유량을 높여줍니다.
  4. 암돼지의 수태율을 높여줍니다.
  5.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자  
매  
품

돼지용 최면제

히프노딜주

제 조 원  JANSSEN PHARMACEUTICA

수입판매원  녹십자수의약품주식회사

T. 582-9181~5